



인터뷰 **계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한미, 피지원-지원 관계서 보완·협력 관계 거쳐... ‘기술동맹’으로 진화



12 <끝>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한미동맹 공고화’까지

건군 75주년을 맞아 26일 개최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역대 행사에서는 보지 못한 ‘특별한 광경’이 연출됐다.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실제 공중임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인 것. 여기에 미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 최초로 도보부대에 편성돼 국군과 함께 행진했다.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국군의 옆에는 미군이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함께 있었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와 공동 연재한 한미동맹 70년 여정을 국군의 날에 맞춰 마무리 지으며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임채우 기자/사진=군편소 제공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그동안 우리는 1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2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3부 연합방위체제, 4부 국방협력 등을 살펴봤다.

우선 제1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시작으로 한미동맹의 시작과 베트남 파병에 따른 관계 변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 등을 소개했다.

한미동맹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을 필두로 유엔이 참전했고, 특히 정전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 끝에 미국이 대한민국과 동맹 체결의 필요성을 수용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변천과 관련해서 1953년 8월 8일 가조인식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미동맹은 줄곧 피지원-지원 관계에 머물다가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시발점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969년 미국이 닉슨독트린을 선언함으로써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했으나 미국의 지원으

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활성화됐고, 1978년 연합방위체제의 지휘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1991년 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의 상호 역할이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으로 조정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담았다. 그 결과로 21세기 들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에 이은 한미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해 동맹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한미동맹이 상호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면서 동맹 협력의 수준을 보다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변해도 역할은 변함없어

2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선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이들을 안정적으로 주둔시키기 위한 한미의 노력을 열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해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대북억제력을 제공하며, 지주적 방위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군의 전력 증강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우선 살펴봤다.

탈냉전기 들어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전략적 유연성 증대와 함께 한반도 역외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군과 주한미군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적합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2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허용됐으나 한국 내 기지 사용이나 주한미군이 채용한 한국인 직원과 미군 범죄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잦아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미가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두 차례 보완했다는 것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력 신장과 군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1년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됐으며, 2022년 11월까지 주한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 지역으로 이전·통합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연합방위체제 확립

3부 연합방위체제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상호 협력하며 특히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한미는 1968년 5월 제1차 한미국방각료회담(현 SCM)을 시작으로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해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대북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해 왔다면 서 미군의 군사교리를 모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 전쟁을 주도하기 위한 고유의 교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1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작
베트남 파병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 발전

2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30년 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통합 적시

3부 연합방위체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 대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 능력 안비 주력

4부 국방협력

기후·사이버·우주 등 포괄적 안보협력 대두
방산·과학기술 협력 확대 실질

북한 위협 관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1993년과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1·2차 북핵 위기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했고,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미동맹 공조체제와 6자회담으로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 대응전략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배경부터 현재 진행상황까지 세부적으로 다뤘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이양했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이양된 ‘일체의 지휘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전통제권’이란 제한된 개념으로 정립되며 유엔군사령관이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됐고, 1978년 11월 7일 한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협약그룹(ING) 창설 등 확장억제 외에도 핵심·신기술에 대한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등 한미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진화시키기로 했다.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자 다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재이양됐다고 서술했다. 또 1990년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정책이 추진되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역할이 점차 국군에 이양됨에 따라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 합참의장이 평소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부터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던 것을 2009년 북한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도발이 이어지자 2014년부터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공고화

4부 국방협력에서는 한미가 한반도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국방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방협력 확대 계기로는 해외파병을 꼽았다. 한국은 1960년대 베트남전 파병 이후 다국적군 평화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방협력활동 등의 해외파병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베트남전 파병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한국의 파병의지와 노력이 미국의 직접적인 파병 요청과 맞물려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베트남전 파병으로 미국이 주도하던 안보동맹 관계를 상호 협의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된 주둔과 국군 현대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1990년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사이버, 우주,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로 포괄적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미 간 협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자세히 소개했다. 또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한미 양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방산·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국군의 날 맞춰 여정 마무리 큰 의미 ‘한미동맹 70년사’ 유용한 안내서 될 것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는 『한미동맹 70년사』 발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일보와 ‘군사편찬연구소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년 여정’을 연재해 왔습니다. 공동 연재는 군편소의 공간사(公刊史) 집필 내용에 대한 외부 의견을 미리 받아 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과 함께 워크숍·자문 등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한미동맹 70년사』는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양국 관계 이해를 위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사』 발간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계용호 군편소 국방사 부장은 공동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우리 군의 역사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국군의 날에 맞춰 한미동맹 70년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년사』는 오는 11월 말 발간을 목표로 후반부 작업에 들어갔다. 『한미동맹 70년사』는 2013년 발간된 통사(通史) 형식의 『한미동맹 60년사』와는 달리 동맹의 성립과 변천, 주한미군, 연합방위체제, 국방협력 등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주제별 콘텐츠로 구성돼 이해도를 높였다. 또 두 나라의 다양한 사료(史料) 등 1차 자료를 추가 발굴·활용해 공간사의 학문적 가치를 더했다.

무엇보다 동맹이 쌓아 온 교훈을 되새기며 한미 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국방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험을 기울이고 있다.

계 부장은 “1950년 6·25전쟁 이후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인이 미국을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은 우리나라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경제적 후원자였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정세와 1989년 미국 의회의 ‘년-워너 수정안(Nunn Warner Amendment)’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로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및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하면서 일시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조로 한미동맹은 선순환적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며 “한미는 각종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전쟁으로 맺은 혈맹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고, 지금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 부장은 『한미동맹 70년사』에는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모습도 자세히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항구적인 안보협력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며 “『한미동맹 70년사』에는 이처럼 한미동맹이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랑분으로 발전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계 부장은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당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역사를 배우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사』는 한미 양국이 함께해 온 70년의 역사를 독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 그들이 현안(懸案)을 해결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혜안(慧眼)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 70년 여정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우 기자

